

강진군 아열대 과수 재배로 농가 미래 활짝 연다

바나나와 애플망고에 이어, 이제는 커피까지.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권으로 변화한 가운데 강진군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으로 레드향 등 아열대과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특히 체리를 비롯해 씨없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유망 과수 재배를 본격 추진하고 있어 결실이 기대된다.

바나나·애플망고 이어 커피까지...친환경에 맛과 영양도 뛰어나
적응성 평가 마친 '레드향' 출하 등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육성

◇ 강진산 바나나 생산·유통체계 구축 시동

이제 강진에서 바나나 재배 농가를 보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니다. 강진읍에 위치한 '지우네 스토리팜'은 약 0.3ha 규모에 바나나 600여 포기 재배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갔으며 하루 평균 20kg 정도를 생산 판매 중에 있다.

개인 주문을 받아 판매중이며 1kg당 1만원 정도로 시중 바나나 가격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당도가 높아 인기가 높다. '송기밭'이라는 품종명에서 유래하여 '강진 송기 바나나'란 브랜드로 판매중이다.

국내에서 키우기 좋게 개량된 종인 송기밭은 식감이 좋고 노란 과육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경쟁력 또한 우수하다.

수입 바나나는 익지 않은 상태에서 후숙을 시켜 먹기에 맛이 떨어진 반면 강진에서 생산한 바나나는 충분한 재배기간을 거친 뒤 수확하고 농장서 후숙 과정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강진산 바나나는 농약 대신 생선 발효액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직접 만든 영양제와 살균·살충제를 살포한다는 점 또한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또 무농약 인증과 함께 GAP인증까지 받아 수입 바나나의 안정성에 의문을 품은 소비자들이 선호해 주문이 많다.

전문가들은 "바나나는 키우기가 쉽고 심은 후 1년 만에 수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로는 농가 소득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유망 작목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득 작목 기대주 본격 유통 대비

당도가 높고 특유의 매력적인 맛이 일품인 애플망고는 지난 2014년 강진읍 최명환씨가 도입해 재배를 시작한 후 올해까지 0.4ha에 재배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성을 확인했고 제주산 못지않은 당도 높은 상품 수확이 가능해 조만간 본격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확 최성기가 7월로 수확 물량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조기 수확을 위한 연구도 한창 진행 중이다.

국내산 애플망고의 경우 5월 이전 수확이

되면 3kg 한 박스에 15만원 이상의 단가가 예상되고, 시기를 잘 맞출 경우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군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도암면 봉황마을에는 커피 농장도 조성돼 재배가 한창이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커피나무를 심은 태남현씨는 국내산 커피콩을 활용해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강진에서 커피 재배를 시작했다.

2중 비닐온실에서 두꺼운 이불로 보온을 하고 난방기를 설치해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부터 일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레드향' 지역 적응성 평가 완료 출하

강진군에는 레드향과 같은 만감류 재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레드향은 강진읍과 칠량면, 신전면을 중심으로 6농가, 2ha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밀감을 교배한 품종으로 수확기는 12부터 1월까지이며 당도는 13에서 15브릭스, 산함량은 1.0% 내외, 과중은 200g 내외이다. 일반 감귤보다 붉은 색상에 짙은 향,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레드향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겨울철 난방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다른 아열대과수의 경우 야간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 반면 레드향 등 만감류는 5도 이상으로만 유지해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

강진산 레드향은 이런 조건을 극복하고 본격 수확 판매까지 이루어져 지역 적응성 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시·군에서 레드향 재배가 점차 대규모로 되고 있고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고품질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이 숙제가 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기후가 따뜻해지는 점은 일부 작물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 지역내 아열대 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며 "국내 수요와 경쟁력을 따져 유망한 아열대 작물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해 농가 소득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의 한 농가에서 애플망고를 수확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승욱 강진군수가 바나나 재배 농가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오른쪽 위) 강진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수확한 레드향을 들어 보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체리·샤인머스켓포도...강진군, 유망 과수 재배 확대 본격 추진

농가 12곳 선정 전문가 교육 등 박차

강진군은 바나나 등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도입과 함께 체리와 샤인머스켓포도 등 유망 과수 재배 확대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미래 유망 과수 도입사업의 일환으로 강진 지역 12농가를 선정해 체리와 샤인머스켓포도 등 아열대 과수를 보급한다.

군은 이들 유망 과수가 관광지에서 연계 판매가 쉽고 체험 농장이나 가공식품 판매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아열대 과수작물의 급격한 재배면적 확대와 수입 과일의 점유율 증가에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과수의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까지 체리 10농가 5ha, 샤인머스켓포도 4농가 1.7ha, 애플망고 2농가 0.6ha, 레드향 6농가 2ha 등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군은 아열대 과수 작물 중 시장성과 재배 적응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유망 과수를 선정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과수에 적합한 토지가 적어 단기에 대단지 형성이 쉽지 않지만 향후 유망 과수를 면단위 단지로 조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 강진읍 '지우네 스토리팜' 시설하우스.

성해 인근 관광지와 연계 판매하거나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승산이 있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체리를 재배 중인 작전면 정현진씨는 "농산물의 면적이 확대 되면 결국 타지역산 과일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재배 농업인들의 철저한 준비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소득 증가와 세계화, 다문

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 과일의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아열대 과수 재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경남과 전남 일대의 대형 온실을 중심으로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이 늘고 있고, 향후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농가 확대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영준강진군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장은 "사전 조사 없이 무작정 재배를 추진하기 보다 시장 반응 조사,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기술 연구, PLS대응 농약 선택 및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아열대 과수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실패 확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농업의 부가 가치를 향상 시키는 대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2019년 문화관광육성축제 || 전라남도 대표(최우수)축제

고흥군

제12회
고흥 우주항공 축제

국민 건강자수 1위 지역 고흥!

The 12th Goheung Aero-Space Festival

2019 5.3 - 5.5 일

로켓 발사 센터장 견학 기회!

주최/후원: 고흥군 / 고흥축제 추진위원회
 후원기관: KANON 나뭇나무문화재단, 국립부산수목원